

# ‘차에서 결제’ 비대면 트렌드 반영... 성능·응답성도 개선



르노삼성자동차 ‘SM6’

방지턱 충격, 노면 진동 등 기존 소비자 요구 적극 반영 편의성 높이고 가격은 낮춰

르노삼성자동차의 중형세단 SM6가 담백하게 돌아왔다.

르노삼성이 지난해 7월 SM6의 파워트레인과 서스펜션을 바꾼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한지 1년여 만에 연식변경 모델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기존 소비자들의 반응을 적극 반영해 불필요한 사양은 과감히 빼고 필요한 요소만을 대거 적용했다. 덕분에 소비자들의 편의성은 높이고 가격 부담은 최소화했다.

르노삼성은 지난 6일 경기 남양주시 소재 프라움 악기 박물관에서 2022년형 SM6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시승은 프라움 악기 박물관을 출발해 설악TG를 경유해 돌아오는 약 85km 구간에서 진행했다. 이날 시승한 모델은 1.3리터



르노삼성 2022년형 SM6.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이 장착된 TCe 260 RE였다. 르노그룹과 다임러가 공동 개발한 엔진으로, 최고 출력 156마력, 최대 토크 26.5kg·m(260Nm)의 성능을 발휘한다.

우선 외관 디자인은 기존의 SM6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면 중앙에 자리한 태풍의 눈 로고와 크롬 그릴, 코끼리 상아 모양의 특유의 C자형 주간 주행등에서 SM6만의 차별화된 세련됨을 느낄 수 있었다. 후면부에는 가로로 긴 LED 테일램프가 탑재되어 SM6의 특징을 담아냈다.

이번에 출시된 2022년형 모델엔 비

대면 트렌드에 발 맞춰 차량용 결제서비스인 ‘인카페이먼트’ 기능을 새롭게 탑재했다. 출발 전 인카페이먼트를 체험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활성화한 뒤 CU 편의점에서 구매할 물건을 선택하자 편의점으로 길안내가 시작됐다. 예상 도착 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운전자가 픽업 시간을 변경할 경우 편의점으로 정보가 전달된다. 15분을 달려 금남리 CU 편의점에 도착한 뒤 ‘매장 호출’ 버튼을 누르니 직원이 물건을 전달해줬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주행 성능도 한층 강화됐다. 기존 S



M6는 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이 크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에 내놓은 모델은 방지턱은 물론 불규칙한 노면의 진동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올려 보니 저속에서부터 중고속 영역까지 부드럽게 치고 나갔다. 특히 가속시 버벅거리지 않고 빠르게 응답했다. SM6은 이전 모델에서 발견된 변속 시 차량 울컥거림(Jerking)을 개선하기 위해 Anti-Jerking 기능을 적용하고 변속조건을 최적화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다만 고속 주행시 풍절음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2022년형 SM6의 가격은 개소세 3.5% 기준으로 TCe 260 ▲SE 트림 2386만원 ▲LE 트림 2739만원 ▲RE 트림 2975만원이다. TCe 300 ▲프리미에르 3387만원, LPe ▲SE Plus 트림 2513만원 ▲LE 트림 2719만원이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매력적이다. 패밀리 세단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포스코, 특허기술 140건 중소기업에 무상 제공

중소 88곳 기술 혁신·성장 도모  
기술지도·컨설팅 등 후속 지원도

포스코그룹이 중소기업의 친환경·스마트화 기술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40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호텔에서 개최된 ‘포스코 기술나눔 업무협약’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석영철 원장, 포스코 천시열 생산기술전략실장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오프라인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해 진행됐다.

포스코그룹은 앞선 8월, 중소기업의 저탄소 사회 구현과 스마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분야 112건, 스마트화 분야 476건 총 588건의 특

허를 공개하고, 이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특허 공개에는 포스코,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총 6개사가 참여했다.

이중 올해는 ‘이산화탄소 회수장치 기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기술’ 등 총 140건의 특허를 88개 중소기업에게 무상 양도하고, 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포함한 후속 사업화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로써 포스코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기술나눔을 통해 241개 중소기업에 총 564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천시열 포스코 생산기술전략실장은 “기후변화 위기 속에 포스코와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한 발자국 더 내딛는 기회가 되고, 장치·공정 스마트화로 친환경 강소기업이 육성될 길 바란다”며 “포스코는 앞으로도 중

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포스코로부터 연료전지 특허를 이전 받은 회사 중 ㈜에프씨 아이는 올해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며, 이밖에도 12개 회사가 2022년 이후 벨트 컨베이어, IT 서비스 플랫폼 등의 시장 진입을 목표로 적극적인 R&D 활동을 펼치는 등 포스코의 기술나눔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2013년 시작된 기술나눔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공공연구소 및 대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료로 개방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으로, 포스코는 2017년부터 동참해오고 있다.

/양성운 기자



‘멈추지 않는 일상’ 행사 모습

/삼성전자

## 삼성전자, 유럽서 비스포크 생태계 전파

영국서 ‘버추얼 콘퍼런스’ 개최  
멈추지 않는 일상 통해 라인업 선봬

삼성전자가 유럽에서도 비스포크를 활용한 ‘멈추지 않는 일상’을 소개한다.

삼성전자는 12일(현지시간) 영국에서 버추얼 콘퍼런스 ‘Life Unstoppable(멈추지 않는 일상) 2021’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비스포크 가전과 라이프스타일 TV, 폴더블 스마트폰 등 소비자들을 풍요롭게 할 혁신제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 진행되는 행사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주요 제품과 서비스를 현지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된 비스포크 홈 라인업 ▲퀵 미니 LED가 적용돼 차별화된 화질을 제공하는 ‘Neo QLED’ ▲프리미엄 프로젝트 ‘더 프리미어(The Premiere)’ ▲최고 사양을 탑재한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Neo G9’ ▲‘갤럭시 Z 폴드 3’를 비롯한 최신 모바일 제품과 주변기기 등을 함께 소개했다.

비스포크 홈 라인업도 비스포크 냉장고 뿐 아니라 ▲정수 기능에 냉수·온수 모듈을 선택해 추가할 수 있는 ‘비스포크 정수기’ ▲청정스테이션 일체형 무선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인공지능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봇 AI’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비스포크 큐브 에어’ ▲리뉴어를 완성시켜주는 ‘비스포크 에어드레서’와 신발관리기 ‘비스포크 슈드레서’ 등 비스포크 홈의 가치를 전하는 주요 제품들을 폭 넓게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유럽시장에서도 올 초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된 ‘비스포크 홈 2021’ 행사 내용을 본격적으로 소개한다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놀라움이 가득한 집’이라는 주제로 만든 단편 영화를 통해 비스포크 가전과 에코시스템으로 가족 구성원 취향과 요구를 반영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삼성전자 유럽총괄 CMO인 벤자민 브라운 상무는 “지난 2년간 집의 의미와 기술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삼성전자가 선보이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는 편리함을 넘어 우리 삶에 영감과 활력을 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유럽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자인 공모전인 ‘비스포크 디자인드 바이 유(#BespokeDesignedByYou)’ 결과도 발표했다. 총 1581개의 작품을 접수받아 527대 1의 경쟁률로 최종 3명을 선정했다. 영국의 리타 루이스가 흰색 바탕에 파란색의 수목을 브러시로 칠해 시적인 움직임을 강조한 ‘로스트 랜드스케이프’를 출품해 호평을 받았다.

/김재용 기자 juk@

## LG엔솔-GM, 볼트EV 배터리 리콜 합의

연내 기업공개 재추진

LG에너지솔루션이 제너럴모터스(GM)와의 전기차 볼트EV 배터리 리콜에 합의하면서 연내 기업공개(IPO)를 재추진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당사와 LG전자, GM 3사 간의 리콜 관련 합의가 순조롭게 종결됐다”고 12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먼저 3사가 공동 조사를 통해 제품 상세 분석 및 다양한 테스트를 실시했다며 “분리막 밀림과 음극판 단선이 드물지만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콜 대상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초기 생산 분은 모듈·팩 전수 교체, 최근 생산 분은 진단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모듈 선별 교체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리콜과 관련해 배터리 셀 및 모듈 라인의 공정 개선이 이미 완료돼 생산이 재개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 이번 리콜을 원만하게 해결한 것을 계기로 상호 신뢰를 더욱 돈독히 다지고 미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LS그룹

##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LS그룹이 하반기에도 공개 채용을 단행하며 인재 확보 및 사회적 책임 수행에 나섰다.

LS는 지난달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채용 기업은 LS전선과 LS일렉트릭, LS니코동제련 등 4개 계열사다. E1은 동계 인턴 채용을 고려해 10월 말에 별도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백명대를 채용할 계획으로, 수시 채용 등을 합치면 올해에만 1000여명을 새로 뽑는 셈이다.

/김재용 기자